

아·태 관광도시들, 내년 6월 전주서 모인다

우경하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 사무총장, 전주 찾아 우범기 시장 면담 TPO 총회 업무 협의

아시아태평양 각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들과 민간단체들이 관광거점도시 전주에 모인다.

전주시는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의 2023년 제11회 총회가 내년 6월 전주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22일 밝혔다.

TPO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도시 간 교류와 관광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지난 2002년 8월 창설된 국제기구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과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16개국 137개 도시·지역의 정부와 56개 민간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회원도시와 민간단체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관광산업 진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인 TPO 총회는 약 2년 주기로 열린다.

‘도시가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주제로 열리는 내년 전주 총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관광산업



우경하 사무총장 등 TPO 사무국 관계자들은 22일 전주를 찾아 우범기 전주시장을 만나 내년 TPO 총회 개최를 위한 준비 사항 등을 논의했다.

진흥을 주제로 열린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관광거점도시 전주를 중심으로 한 관광 관련 글로벌 아젠다가 논의될 수 있도록 총회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경하 사무총장 등 TPO 사무국 관계자들은 이날 전주를 찾아 우범기 전주시장을 만나 내년 TPO 총회 개최를 위한 준비 사항 등을 논의했다.

우 시장과 우 사무총장은 TPO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광 관련 최대 국제기구인 만큼 내년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자고 다짐했다.

서병원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최대 관광 관련 국제기구인 TPO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전주시가 글로벌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관광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기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전주시, 한옥마을보존팀 최우수 사례 선정

전주시는 평소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시민 편익 증진과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에 기여한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각 부서에서 추천한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1차 실무심사와 2차 온라인 시민 및 직원투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의 절차를 거쳐 팀 부분 1개 팀과 개인 부분 4명을 최종 선발했다.

최우수 사례는 전주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행위 심의 시 불명확한 심의기준(주거비율 20% 확보)을 폐지한 한옥마을보존팀(팀장 송경훈)이 선정됐다.

주거비율 20% 기준의 경우 ‘한옥마을의 지나친 상업화 및 원주민 유출 방지’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규모가 너무 작아 주거 용도나 상업 용도로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또, 이로 인해 그간 불법용도변경과 종합부동산세 가중 등 각종 부작용을 야기해왔다.

이에 한옥마을보존팀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옥마을 상가건물에 대한 주거면적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고문번호사 법률자문을 통한 정당성 확보 및 한옥보존위원회 결의를 통해 건축행위시 주거비율 20% 확보 심의기준을 폐지했다.

이어 개인부문 ‘우수’ 사례로는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사업 추진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근로자의 복지에 기여한 문성현 중소기업과 주무관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천년전주콜센터 상담록’을 추진한 임나경 자치행정과 주무관 △어르신들의 정신건강과 돌봄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을 추진한 나지원 통합돌봄과 주무관 △동물공부화 및 긍정 강화훈련을 도입해 사육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한 유동혁 동물원 주무관이 각각 개인부문 ‘장려’ 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선정된 우수공무원들에 대해 표창 및 포상, 국외연수 기회 제공, 특별휴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황관주 시 기획조정국장은 “시민들의 눈높이와 다양해진 행정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은 이제 공직사회 필수 사항이 됐다”면서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적극행정을 우대하고 소극행정을 근절하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갖춰 나가고,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의 큰 꿈, 지금 시작합니다!’ 백서 발간

제40대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26일간의 활동 내용 담은 백서 제작해 전주시에 전달

제40대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26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한 결과물을 ‘전주의 큰 꿈, 지금 시작합니다!’라는 제목의 백서로 제작해 전주시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주의 큰꿈준비단, 26일간의 여정’을 주제로 한 이 백서는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전주의 큰 꿈, 지금 시작합니다! △전주의 큰 꿈을 위한 낮은 발걸음 △제40대 전주 시장 취임 행사 △인수위원회 예산 결산 내역 △제40대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백서 등 총 7개의 목차로 구성됐다.

백서에는 △우범기 전주시장의 비전 △시정목표와 방침 △8대 중점과제 76개 세부정책 등 민선8기 전주시의 비

전 △인수위 활동 내용 및 예산 결산 내역 △당선인 주요 활동 내용 △취임 행사 △인수위 백서 편찬 과정 등 26일간의 활동이 꼼꼼하게 담겨있다.

인수위는 민선8기 전주시정 목표를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비전과 정책을 통해 ‘전주의 큰 꿈·경제·문화·복지’의 큰 그림을 제시함으로써 우범기 시장의 철학이 잘 드러나도록 도왔다.

전주시가 추진해야 할 8대 중점과제로는 △100만 통합 전주 광역도시 생활권 조성 △전주형 일자리 창출 및 기업도시로 대변혁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구현 △신성장산업 확장 및 농생명산업 육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실현 △시민활력 증진을 위한 복합문화사업 추진 △생활 밀착형 보편적 복지 확대 △생애 전주기 맞춤형 교육·복지 체계 구축으로 제시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76개 정책도 제안했다.

우범기 시장이 강한 의지를 피력해 온 전주·완주 통합 논의와 대한방직·종합경기장 개발 방안 등 전주의 핵심사안에 대한 논의 과정도 심도 있게 담겨있다.

아울러 우 시장이 직접 각 실·국 업무보고에 참가해 각종 규제 완화와 규모 있는 사업 추진 등을 지시사항으로 전달하고 언론사·산업현장·재계 발추진위 등 현장 방문 소통행보 과정도 소개했다.

/김재훈기자

전주시, 초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탄소중립 교육

전주시가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찾아가는 탄소중립 교육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22일부터 오는 11월까지 지역 초등학교를 방문해 초등학교생들을 대

상으로 ‘찾아가는 탄소중립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학교별 수요조사를 통해 교육 신청을 받은 시는 약 30개 학교(약 5000여 명)에서 탄소중립 교육을 진행하기

로 했다. 시는 이를 통해 초등학교 학생들이 기후위기나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고, 교육내용의 반응을 살펴 향후 교육 대상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 수요처를 발굴해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탄소중립에 관심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도 개별적으로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15인 이상의 모임이나 단체, 기관들이 희망 날짜를 정한 후 전화(063-281-2750) 또는 전자우편(cham0403@korea.kr)으로 교육 내용을 기재해서 보내면 된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접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학업과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가 지원된다.

전주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정부의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학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주거비를 일정 기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 가운데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중인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 원 이하인 경우 면 지원받을 수 있다.

월세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청년 본인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6887원) △재산가액 1억70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 4701원) △재산가액 3억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기혼자, 미혼부·모인 경우,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 중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일 경우에도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의 가족이 소유한 주택에 임차해 거주하거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자체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